농업용 항생제 내성, 통합 감시체계 구축 절실

항생제 사용률 OECD 최고 수준
식물의사제도 도입 필요

박상래 기자

'식물 위생을 위한 병해충 방제용 항생제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농업 환경의 항생제 내성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학계, 산업계, 기관 및 정책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농업용 항생제 사용은 식물은 물론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류경열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은 '농용항생제 연구 동향'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농업분야 항생제 내성 최소화를 위해 항생제 농약의 오용, 남용을 줄이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며 "항생제 사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항생제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수 전북대 교수는 '식물위생 중심의 농용항생제 관리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약 100개 이상의 농작물에서 항생제 사용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용량 초과, 혼용, 중복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범정부 차원의 원헬스 차원의 접근법 필요성과 객관적인 기준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처방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전북대 교수는 '항생제에 의한 내성 유도 메커니즘'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항생제 사용률이 OECD 12개국 평균 최고 수준으로 나타날 정도로 국내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초 기전 이해를 통한 내성균 출현 원천 방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구 전북대 교수와 이세진 국립순천대 교수 사회로 '식물의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의 정책방향 토론이 이어졌다.

지구 환경의 오염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 사망원인 1위로 예측되는 등 인체의 중요 항생제 내성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및 농업환경' 분야가 추가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면서 방제 목적의 농업용 항생제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 농업용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식물안전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은 항생제 내성관리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의 활용까지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젠 더 센 변이 '오미크론'까지 온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듯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강한 전파력으로 동물 전염병뿐만 아니라 식물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전북대,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순천대학교는 학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식물위생 전문가 도입 방안 제시와 역할, 의무사항 정립,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

전북지식재산센터-벤처기업협-여성벤처기업협 MOU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전북협회, 전북여성벤처기업협의회는 지난 26일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교육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IP(지식재산)기반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중소·벤처기업 중에 특히,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및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 교육 및 창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벤처기업협회 전북협회와 전북여성벤처기업협의회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적극 연계협력 할 계획이다.

각 기관에서는 지역의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사업 등을 발굴해 상호 연계 및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전북협회 이인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IP경영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전북여성벤처기업협의회 박금옥 회장은 "전북지역 여성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들이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IP(지식재산)경영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한국발명진흥회는 벤처기업확인 평가기관으로 전북지역의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P(지식재산)활용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전북은행, 이탈리아 르네상스 강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이 총 3회에 걸쳐 진행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여행' 강연을 마쳤다.

지난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 이번 강연은 이탈리아 공인 건축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30년 동안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문화예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정태남 박사와 문화예술경제학 르네상스 문명사의 대가이면서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당신이 보지 못한 피렌체' 등의 저자 성제환 석좌교수가 청중들과 만났다.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랜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정태남 박사가 로마와 베네치아를 성제환 교수가 피렌체의 안내자를 맡았다.

정 박사는 1강에서 로마 역사 천년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콜로세움, 아피아 가도, 수도교 등의 건축과 유적들을 소개하였고, 2강에서는 물과 카니발의 도시 베네치아를 랜선으로 걸으며 왜 물 위에 도시를 세우게 되었는지부터 꼭 만나야 할 공간들을 안내해 마치 현장에서 베네치아 곳곳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24일 마지막 세 번째 강연에 나선 성제환 석좌교수는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예술이 꽃피게 된 원류 및 토착귀족과 신흥 상인들 사이의 권력 투쟁,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갖게 되는 과정, 이러한 권력투쟁의 가운데서 아름다운 예술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 등을 이야기하며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상래 기자

전북농협, 금융위기 극복과 상호금융 업무개선

상호금융 업무개선 실무협의회 가져

전북농협은 지난 26일 지역 농·축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상생금융 및 포용적 금융강화를 위해 농협전북본부에서 2021년 하반기 '상호금융 업무개선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농·축협 위원 20여명과 본부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2022년 상호금융 업무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주제로 사업 추진방향 설명,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업무개선 실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문제 대두, 언택트문화·비대면 거래·디지털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 내년도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만큼 비이자 이익 증대를 통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전북농협이 코로나19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손익구조를 갖춰 최고의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상래 기자

화제

김해시청 축산 공무원-농가 대표단 전북 방문

정읍 줌바이오텍 공장서 축산 악취 저감시스템 효능 검토

"줌바이오텍은 축산 악취 저감 시스템을 전북지역 40여 개 농가에 설치해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악취제거에 탁월함을 보이고 있고, 시스템을 설치한 축산 농가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정읍 유한회사 줌바이오텍 공장과 축산 악취 시설 농가를 방문, 이 회사의 악취 저감 처리 시설과 관리 능력을 확인한 뒤 관내 한돈 협회와 축산 농가에 이를 알렸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회사를 적시해 농가에 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데도 이를 농가에 알리고 농가와 함께 공장 견학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다.

김해시는 그동안 축산 농가 악취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가지 방안을 실시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던 중 최근 정읍에 있는 줌바이오택의 악취제거 시스템을 알게 됐다는 것.

김해시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관계공무원, 축산 농가 대표 30여 명과 함께 줌바이오텍 본사를 방문하게 된 것.

이날 대표단은 이 회사 축산 악취 저감 시스템을 설치한 농가를 방문해 정말 악취가 사라지고 민원도 사라졌는지 등을 직접 살폈다.

자치단체가 직접 대표단까지 꾸려 방문한 줌바이오텍 포레테 시스템은 악취의 원인인 분뇨에 미생물을 직접 분사해 고착 슬러지를 분해하며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악취를 줄이는 기술로 현재 40여 농가에서 시설해 실질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 박광철 대표는 "줌바이오텍의 악취 저감 시스템 기술로 축산 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청정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는 지난 26일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수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장과 조인갑 농협부안군지부장, 신왕철 변산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생필품 전달과 건강검진권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부안군 김씨는 "부실화된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성수 지사장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경제브리핑

임근홍 건협 전북도회 회장
전문건설업계 권익보호에 노력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협회 발전을 위해 늘 회원사와 소통하고, 회원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임근홍(사진) 회장(59)의 취임 일성이다.

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맡은 중책이니만큼 더더욱 협회의 발전과 회원사를 위해 집중하고, 전임 김태경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회원사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회원사와 소통하는 협회, 회원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굳게 결집된 협회로 거듭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전문건설사업자의 위상을 높이며, 늘 회원의 편에 서서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3,000여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며 대변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이하 협회) 제12대 임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25일 라한호텔 온고을에서 열렸다.

임 회장은 전임 김태경 도회장이 중앙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도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로 등록해 지난 4일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제12대 도회장에 당선됐다.

임 회장은 유한회사 유림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북도회 제9대 운영위원과 제11대 포장공사업 운영분과 위원장과 도회 제11대 도회 부회장, 중앙회 제11대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제12대 도회 운영위원도 역임했다. 임근홍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0월 31일까지다. /박상래 기자

제5회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 조익종 기능장 최우수상 수상

'2021 제5회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는 조익종 기능장(대한제과협회 경기지회 안양시지부/엔데오에프엔비 명장시대)이 뽑혔다. 조 기능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조 기능장이 출품한 제품은 맛, 모양, 시장성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와 공동으로 '2021 제5회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쌀가루 전용 품종을 이용한 새로운 빵·과자 제품을 발굴해 '쌀빵'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제빵·제과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참가자는 대한제과협회 회원으로 각 지회의 추천을 받은 제과인이다.

올해 대회 본선에는 총 36명의 제과인이 참여했으며, 각각 △식빵 2종 △조리빵 2종 △단과자빵(단팥빵, 크림빵) 2종 △구움과자 소(小)형(마들렌, 피낭시에, 머핀 등) 2종 제품을 선보였다.

출품된 각각의 제품에는 대회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쌀가루 전용 품종 '가루미2'를 전체 반죽 중량의 50%이상 사용했다.

'가루미2' 품종은 미리 물에 불리는 번거로움 없이 분쇄기에 넣어 바로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건식 제분용으로 개발됐다. 빵은 물론 국수, 맥주, 가정용 제과·제빵용 가루(프리믹스) 등으로 활용도가 높다.

출품 제품은 △맛(20점) △예술성 및 색상의 조화(15점) △독창성 및 창의성(15점) △시장성 및 대중성(20점) △배합표(20점) △제품설명(10점) 등 총 6항목에 걸쳐 심사를 받았다. /박상래 기자